

국수(면요리)에 숨겨진 결혼?

한국어로 “언제 결혼해요?”라는 표현을 “언제 국수 먹어요?”라고도 합니다. 결혼식장이 없었던 시절에는 신부 측 집 마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으며, 축하객에게는 국수라는 면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면 요리가 귀중한 요리였던 점과 긴 면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믿어져 온 점으로부터 다 같이 행복하게 오래 살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결혼식의 차이점은 우선 초대장이 없어도 참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척은 물론 신랑 신부 양가의 지인 등도 참가함으로 직접적으로 면식이 없는 분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참가하는 손님은 정장만이 아닌 편안한 스타일을 하는 분도 많아서 복장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친한 친구면 10 만 원 정도이지만, 알고 지내는 정도는 3 만 원 ~ 5 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결혼식은 일본에 비해 짧아서 약 1 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결혼해도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부부별성). 혹시 한국인 친구가 생기면 꼭 결혼식에 참가해 보세요.

신혼 여행지로서 이전에는 하와이, 발리, 몰디브, 칸쿤 등의 해외가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2019 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해 국내 여행지가 각광을 받게 되어 제주도, 남해, 부산, 강원도, 울릉도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인생 최대의 잔치 중의 하나인 결혼이 과거 30 년에 걸쳐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1 년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3.4 살, 여성 31.1 살로, 1991 년 남성 27.9 살, 여성 24.8 살에 비해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을 노총각과 노처녀라고 합니다. 2016 년 4 월 8 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의하면 노총각은 37.7 살부터, 노처녀는 25.5 살부터라고 합니다. 만혼화가 진행되어 짐에 따라 자연히 초산 연령도 1993 년 27.6 살에서 2021 년 33.4 살로 높아져 더욱이 출생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21 년 출생률은 0.81 까지 저하되어(일본 1.34), 지금은 결혼 지원과 저출산 대책이 국가 정책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정일(오사카공립대학교)